

➤ Advice : 1

학원강의 활용법

첨식반 합격생이 전하는 수험생활

I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한림법학원 침삭반을 수강하고 제13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제12회 변호사시험을 마치고 객관식을 채점한 결과 금컷에 못 미치는 결과를 받아 ‘어쩌면, 정말 운이 좋으면 요행으로라도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불합격 발표까지 3개월을 보냈습니다.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 발표 직전에 객관식을 넉넉하게 맞아 두었다라면 이렇게까지 괴로운 3개월을 보내지는 않았을 텐데 싫어 무척 괴로웠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형사법 선택형 시험 종료 직전에 정답을 발견했지만 시간이 부족하여 마킹을 고칠 수가 없었던 문제 하나가 두고두고 머릿속에 남아 저를 괴롭혔습니다. 불합격 발표 다음 날 성적을 확인해 보니 객관식을 1개만 더 맞았다라면 (원점수 2.5점) 합격할 수 있었을 성적이었습니다. 아쉬웠지만, 제가 그 문제를 맞혔더라도 합격선은 또 그만큼 올라 결국은 실력 부족으로 불합격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불합격한 것인데, 무엇이든 맞힐 것도 없고, 내년에는 올해와는 다르게 합격 발표까지의 긴 시간을 덜 불안하게 보내겠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II 성적표 인증

제12회 변호사시험 성적표(객관식 101개)

선택형			논술형										전문적법률분야	
공법	형사법	민사법	공법			형사법			민사법				환경법	
			1문	2문	기록형	1문	2문	기록형	1문	2문	3문	기록형	1문	2문
62.50	80.00	110.00	52.86	56.96	59.51	41.83	34.58	51.66	80.34	54.92	48.82	83.00	42.17	41.57
			169.33			128.07			267.08				83.74	
총 점			900.72											

제13회 변호사시험 성적표(객관식 119개)

선택형			논술형										전문적법률분야	
공법	형사법	민사법	공법			형사법			민사법				환경법	
			1문	2문	기록형	1문	2문	기록형	1문	2문	3문	기록형	1문	2문
80.00	87.50	130.00	56.23	56.15	52.67	53.91	51.30	55.20	76.75	55.55	41.73	86.83	51.80	49.17
			165.05			160.41			260.86				100.97	
총 점			984.79											

III 한림법학원 침삭반을 선택한 이유

1. 통학 가능한 거리

코로나 사태가 터짐과 동시에 로스쿨에 입학하여 3년을 보내면서, 저는 혼자 공부하기보다 학교든 학원이든 통학해 가며 공부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점, 그리고 자취와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한림법학원 침삭반은 역삼역 부근에 위치해 있어 경기도에서 광역버스를 타고 통학하기에 편리했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려 걸어가거나 버스를 갈아타고 두세 정거장만 더 가면 되었고, 광역버스 입석이 금지되어 신분당선의 엄청난 인구 밀도를 매일 겪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통학에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한림법학원의 큰 장점 중 하나였습니다.

2. 이재상 박사님

로스쿨 3학년 1학기 때까지도 형사법 사례형을 도대체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었고, 불안함이 깊어져 이재상 박사님의 사례형 암기장 수업을 현장으로 수강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이재상 박사님의 커리큘럼을 꼭 현장으로 따라가고 싶었지만, 학교 수업과 병행하기가 어려워 결국은 포기했습니다. 저는 이상하리만치 인강에 집중을 못 하는 학생이었기에 인강을 수강할 수는 없었고, 대신 박사님의 책으로 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12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당시 형사법 사례형 중 형법 부분은 부족하더라도 어떻게든 써낼 수 있게 되었지만, 시간 관리에 실패했고, 형사소송법에 발목이 잡혀 사례형을 완전히 망쳤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어려운 편이었다는 형사법 선택형에서 전날 눈에 발랐던 박사님의 ‘형법압축’에서 읽었던 지문들이 눈에 그대로 들어와 생각보다 괜찮은 점수를 받았고, 이재상 박사님의 수업을 수강할 수 있는 한림법학원을 큰 고민 없이 선택했습니다.

3. 스터디 없이 첨삭과 1대1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첨삭반

로스쿨 재학 시절, 사례집의 모범 답안을 그대로 써야 좋은 답안이 되는 것인지, ‘키워드’라는 게 무엇이고 분량 조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변호사시험을 볼 때까지 헤맸던 기억 때문에 재시를 시작하면서도 불안함이 컸습니다. 그래서 답안을 많이 써 보고, 첨삭도 받고, 각 수업 담당 교수님들로부터 1대1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고, 실제 답안지 분량에 맞춘 실전 답안까지 받아 볼 수 있는 첨삭반을 선택하는 데에도 큰 고민이 없었습니다. 기초가 너무 부족해서 자신이 없는 과목들은 강의반 수업을 단과로 결제하여 수강했습니다.

4. 자율성이 보장되는 관리반

저는 변호사시험 성적이 나오자마자 한림법학원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는데, 학원이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는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공부량을 감시하거나 간섭하지는 않지만 원한다면 주간 계획표를 작성하고 독서실 출결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상담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었으며, 행정적인 측면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전무했습니다.

5. 소결

결국 자기 자신에게 무엇이 맞는지는 자신밖에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학원 선택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을 치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IV 목표

그저 안정적으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기를, 결과 발표가 있기까지의 3개월 동안 나름대로 안심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이를 위해 ① 객관식을 올리자, ② 형사법 구멍을 메우자, ③ 선택법 과락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대비해 두자, ④ 나머지 부분은 새로운 구멍이 되지 않도록 준비해 두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V. 시기별 공부

1. 1순환

가. 민법, 민사소송법 (김남훈 변호사님)

오전 8시 전후로 독서실에 출석하여 그날 칠 시험의 범위를 확인하고 해당 부분을 박승수 변호사님의 기본 사례집으로 예습했습니다. 오후에 시험을 치기 전에 점심을 먹고, 시험을 1시간 동안 치고, 수업을 듣고, 다시 독서실로 돌아가 실전 답안으로 복습을 했습니다. 첨삭이 있는 날에는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시간에 맞추어 첨삭을 받았습니다. 이 시기에 선택형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나. 상법 (김남훈 변호사님)

하루 일과는 위와 동일했고, 다만 예습을 '상법요해'를 읽는 것으로 대신했고, 오후에 복습할 때 김남훈 변호사님의 상법 핵심지문총정리를 진도에 맞춰 최대한 풀어 보려고 했습니다.

다. 형법 (이재상 박사님)

하루 일과는 위와 동일했고, 예습은 박사님의 '진도별 형법사례'와 '진도별 형법사례 핸드북'으로 했습니다. 박사님께서 핸드북으로만 예습해도 충분하다고 하셨지만 가끔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을 보충하고 싶었고, 워낙 형사법을 못한다고 생각해서 가장 시간이 넉넉한 1순환 때 약점을 보완해 두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진도별 형법사례'도 함께 보았습니다. 이때 '진도별 형법사례'로 핸드북을 보충해도 괜찮을지 여부도 박사님께 여쭙 보고 박사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대로 했습니다. 형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박사님 말씀대로만 했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의문이 들 때면 절대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박사님께 여쭙 보았습니다.

복습도 박사님께서 수업 시간에 말씀해 주신 방법대로 했는데, 수업 내용을 복습한 후 문제만 보고 다시 답안을 처음부터 작성해 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답안을 쓰려니 바로 생각이 나지 않거나 키워드가 부정확하게 추출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는 서너 번씩 다시 써 보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워낙 답안이 엉망진창이어서 첨삭을 받으려 갈 때 처음 제출한 답안과 다시 쓴 답안을 모두 가져가 1대1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박사님께서 형사법은 사례형을 공부하다 보면 선택형도 자연스레 공부되는 효과가 있고, 이 시기에는 사례형에 집중하려고 하셔서 선택형은 따로 풀지 않았습니다.

라. 형사소송법 (정주형 교수님)

하루 일과는 위와 동일했고, 예습은 교수님의 '핵심암기장' 사례형 부분의 해당 범위를 미리 읽어 보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저는 제 형사법 실력이 처참하다고 생각했고, 실제로도 그러했고, 형법은 그나마 3학년 때 이재상 박사님의 암기장 강의라도 들어 보았지만 형사소송법은 그보다 더 못하는 상태로 백지보다도 못한, 단편적으로 암기한 내용이 마구 뒤섞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교과서나 사례집을 읽어 보아도 모범 답안이 어떤 논리로 도출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절망스러웠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1순환 때에는 무엇보다도 형사소송법에 대한 공포심을 극복하기를 원했는데, 정주형 교수님의 수업이 이 부분을 충족시켜 주었기에 조금씩 안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수업을 들은 후 복습할 때 매 시간 나눠 주시는 실전 답안을 읽으면 형사소송법도 이해가 된다는 느낌이 들어 더는 시험을 볼 때 공포심에 얼어붙지 않게 되었고, 침착하게 조문을 찾아 볼 수 있게 되어 저로서는 장족의 발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 헌법 (선동주 교수님)

공법은 강의반 수업을 단과로 결제하여 오전에 강의반 수업을 들었습니다. 제12회 변호사시험의 공법 사례형 및 기록형에서 그나마 괜찮은 점수를 받았는데, 그 이유를 스스로 알 수가 없어 내년에도 잘 볼 수 있으리라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공법은 차근차근 공부해 본 적이 없고 급한 부분만 배우다가 변호사시험에 들어갔었던 느낌이 들어 1순환 때 강의로 정리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법은 문제에 주어진 상황이 무엇인지, 무엇을 묻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부터가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선동주 교수님께서 목차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포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례집으로 상세

하게 설명해 주셨고 기초적인 헌법 지식도 잡아 주셔서 차츰 문제와 답안 작성 방법을 이해해 갈 수 있었습니다.

강의반 수업이 끝난 직후 시작되는 첨삭반 수업을 듣기까지는 어려워서 자료만 챙겨 문제와 실전 답안을 여러 번 읽어 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1순환에는 답안보다 문제를 더 많이 읽어 보면서 쟁점을 추출해 보는 연습을 주로 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김유향 변호사님의 '헌법300'과 사례형 기출문제집으로 복습했습니다. 작년에 위 책들로 공부하여 결과가 괜찮았던 것 같아서 최신판을 구매하여 강의반 진도 부분에 맞게 가볍게 읽어 보는 정도로 복습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 선택형은 따로 풀지 않았습니다.

바. 행정법 (서창교 교수님)

위와 마찬가지로 오전에 강의반 수업을 들었습니다. 서창교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며 처음으로 행정법이 이해가 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행정법을 전혀 모른 채로 답안을 작성해 왔다는 생각이 들어 강의반 수업을 듣기를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점심을 먹고 서창교 교수님의 사례집 중 개념의 정의와 포섭 부분 위주로 읽어 보았고, 문제를 독해하는 것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시간에 쫓겨 문제, 특히 참조 조문을 대충 읽고 넘기는 습관을 완전히 없애려고 노력했습니다. 첨삭반 자료를 챙겼지만 이 시기에는 문제를 읽고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되지 않아서 문제를 여러 번 읽어 보고 실전 답안은 목차와 포섭 부분 위주로 외우려고 시도해 보았습니다. 이 시기에 선택형은 따로 풀지 않았습니다.

사. 기타 (특강, 기록형)

학원에서 무료 특강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도록 해 주셨지만 매일 예습, 시험, 강의, 복습으로 이어지는 루틴을 반복하는 것도 빠듯하게 느껴져서 많이 참석하지는 못했습니다. 기록형은 1순환 행정법까지 종료된 후 민사법부터 강의를 진행되었는데, 기출문제를 직접 풀어 보는 강의였으면 좋았겠다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2. 2순환

각 과목 최신판례 강의를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학원에 제일 소홀했던 시기가 2순환이었습니다. 체력 문제가 컸는데, 강의를 오전과 오후에 걸쳐 진행되어 하루가 끝나면 복습할 의욕이 나지 않았고, 복습을 못 하다 보니 이렇게 수업을 듣는데 머리에 과연 얼마나 남을까 싶은 회의감이 들어 더욱 지치는 악순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돌이켜 보니 저는 6월 모의고사를 치지 않고 CBT로 진행되는 8월 모의고사부터 응시했는데, 변호사시험을 치르고 다시 학교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 지치기도 했고, 작년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제 변호사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부족한 점만 보여서 불안감이 치솟아 더욱 집중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불합격을 확인한 후 충격에 빠져 학원을 성실하게 다니고 하루 일과를 소화하는 데만 집중하다가 1순환이 끝나고 8월 모의고사가 다가오는 이 시기에 지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자괴감을 느끼지 말고 8월 모의고사를 가볍고 무난하게 치러내면 성공이라는 생각으로 조금씩 집중하는 시간을 다시 늘려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하반기에 n시생들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최신판례 특강을 진행한다는 점이 기억나서 더욱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2순환 후반부, 즉 8월 모의고사에 가까워질수록 학원에 나가 수업을 듣는 데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시험에서 안정적인 객관식 점수를 받는 데 가장 걸림돌이라고 생각했던 공법 선택형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신촌의 모 학원에서 진행되는 헌법 OX강의를 현장으로 수강하기도 했고(여전히 인강에는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작년 합격 시기 중 선택형을 회차별로 풀어 보았다는 수기가 인상에 남아 민사법 선택형 5개년을 회차별로 풀어 보았습니다. 모의고사 선택형 개수가 너무 저조하면 불안감 때문에 변호사시험이 가까워질수록 초조해지고 집중하기 어려워졌던 점을 기억하고 8월 모의고사 때부터 평균을 넘는 선택형 개수를 맞추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고, CBT에도 익숙해질 수 있어서 만족했습니다.

2순환은 여름에 진행되기 때문에 체력적 부담이 큰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장마 기간에 학원에 가는 광역버스 안에서 심하게 멀미를 하고 체한 뒤로 속이 계속 좋지 않아 꼬박꼬박 먹던 아침도 생략하고 점심은 죽으로만 해결해 가면서 수업을 들어서 더 빨리 지쳤던 것 같습니다. 무사히 1순환을 마쳤으니 8월 모의고사로 실전 감각을 다시 끌어올린다는 중간 목표를 달성하면 성공인 것 같습니다.

3. 3순환

진도별 모의고사 기간입니다. 이때부터는 예습은 하지 않고 시험을 치고, 수업을 듣고, 복습을 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사례형은 전 과목을 문제를 읽고 실전 답안을 외우는 방식으로 복습했습니다. 선택형은 응시할 때도 있었고, 응시하지 않을 때도 있었는데, 기출문제도 다 못 푼 상태에서 진도별 모의고사 선택형까지 반복할 수는 없을 것 같아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시험까지 진도별 모의고사 선택형을 반복한 과목은 없고, 사례형은 전 과목 진도별 모의고사 실전답안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저는 제가 10월 모의고사에서 객관식을 너무 못 보면 변호사시험 때까지 불안함에 시달리면서 갈팡질팡하다가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선택형 기출을 푸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모의고사 직전에 진행된 행정법 진도별 모의고사는 자료만 다운로드받아 복습하고 학원에 나가지 않은 채 객관식을 계획한 데까지 풀고 모의고사를 치려고 했습니다.

민법은 5개년 회차별, 민사소송법과 상법은 김남훈 변호사님의 핵심지문총정리, 형법은 사례형으로 해결된다는 박사님의 말씀을 믿고 따로 기출을 풀지 않았고, 형사소송법도 따로 기출을 풀지 않고 최신판례를 복습했고, 헌법은 8월 모의고사 전에 들어 둔 OX강의의 문제집, 행정법은 서창교 교수님의 선택형 기출문제집을 풀고 모의고사에 응시했습니다. 101개를 맞아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4. 4순환 및 최종정리

전범위 모의고사 기간입니다. 이 시기에도 3순환과 마찬가지로 예습은 하지 않고 시험을 치고, 수업을 듣고, 복습을 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객관식 비중을 크게 늘렸고, 이때까지도 어렵게 느껴지는 과목이나 특정 부분은 과감하게 새로운 자료를 추가해서 시험 전까지 최소한(부분적으로라도) 5회독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료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고, 이전까지 반복한 자료는 3순환까지 마치며 이미 제 것으로 만들었고, 거기에 더해 부족한 부분을 하나씩 지워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원에 매일 나가지는 않았지만 학원 스케줄대로 각 과목의 회독을 마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루이틀씩 밀리기는 했지만 12월 중순까지 전과목의 1회독을 마치면서 변호사시험 때까지 반복할 최종적인 자료를 하나씩 정하고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12월 중순부터 말까지 약 2주 동안 같은 순서로 위 자료를 다시 한 번 보며 다시 1회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시험 때까지 마지막 회독을 하며 마찬가지로 위 자료를 다시 한 번 1회독을 했습니다. 변호사시험 기간에는 각 과목을 보기 전날 위의 자료를 최대한 보고 들어갔습니다. 이 시기부터는 자신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전날에 보고 시험 직전 쉬는 시간에 보는 것도 통틀어 1회독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4순환 때 마지막으로 회독할 자료를 정하고 꾸역꾸역 정독하고 어떻게든 각 과목을 마무리하여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고, 위 과정을 행정법까지 완료하는 과정이 작년 수험 생활 중 가장 괴로웠습니다. 늘어지는 느낌이 들 때 학원에 나가 시험을 보고 침식을 받고, 학원의 4순환 계획표를 보며 어떻게든 따라가려고 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위 과정을 완료하기 어려웠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12월 중순부터 회독을 반복할 때에는 분명히 며칠 전 본 자료인데도 기억이 희미해져 대충 넘어가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처음부터 끝까지 형광펜으로 밑줄을 쳐 가면서라도 제대로 읽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학원 강의가 끝나고 변호사시험을 보기까지의 기간은 괴로웠지만 이 시기에 어떻게든 제대로 회독을 하려고 노력한 것이 제게는 유효한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택형의 경우, 민법은 5개년 회차별을 풀었습니다. 민사소송법과 상법은 김남훈 변호사님 핵심지문 총정리를 여러 권 사서 풀고 버리고 풀고 버리고를 반복하다가 12월 말에는 다시 풀 시간이 없을 것 같아 마지막으로 푼 것에 형광펜으로 틀린 문제와 다시 보아야 할 문제에 체크를 해 두었습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5개년 회차별을 풀었다가 법과 판례가 바뀐 부분 때문에 헛갈릴 수 있을 것 같아 반복할 때는 2개년만 회차별로 풀었습니다. 대신 이재상 박사님이 조언해 주신 대로 당해 모의고사를 반복해서 풀었고, 박사님의 '형법압축'을 회독했습니다. 헌법과 행정법은 결국 헌법 OX문제집과 서창교 교수님의 선택형 기출문제집은 빠르게 회독하는 데 제가 어려움을 느껴서 회차별로 5개년을 풀었습니다. 변호사시험 전날에 헌법의 통치구조 조문을 여러 번 소리 내어 읽어 보고 숫자를 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VI. 선택법 (박혜원 변호사님)

환경법은 학원에서 강의를 개설되지 않아 해커스 변호사 학원의 박혜원 변호사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전개년 기출 해설 강의를 현장으로 들었고, 위 자료를 반복적으로 회독했습니다. 기출을 전부 차근차근 풀어 주시는데, 문제가 반복된다는 점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어 불안감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특히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받고 어떤 과정을 거쳐 답안을 작성할지 반복해서 짚어 주시는데, 마지막 날 마지막 교시에 치르는 환경법 시험을 이때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거쳐 볼 수 있어서 안도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목차를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문제에 주어진 내용을 활용하여 풍부하게 포섭을 하고, 개별 법령의 조문을 찾는 노하우를 알려 주셔서 좋은 점수를 얻는 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VII. 마치며

변호사시험을 마치고 제가 작년에 세웠던 목표대로 ① 객관식을 올렸고, ② 형사법 구멍을 메웠고, ③ 선택법 과락은 유일하게 전혀 걱정되지 않을 정도로 작성했다고 느꼈고, ④ 나머지 부분에서 치명적인 구멍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비록 고득점은 하지 못했지만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어서 안도감과 감사함을 가장 깊게 느낍니다. 변호사시험의 모든 과목이 여전히 고비로 느껴졌지만 올해는 작년에 침삭반 교수님들께서 해 주신 말씀들이 고비마다 떠올라 하나씩 하나씩 넘을 수 있었습니다. 8개월은 짧고, 금방 지나가니 불합격의 고통도 잠시뿐이고 학원을 따라가다 보면 내년 시험도 분명 잘 치를 수 있습니다. 모든 분의 건승을 빕니다.